

“광주 특색 토대 글로벌 문화콘텐츠 개발”

최근 취임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연구기획·창작 아우른 시스템 구축
예술 가치 확산 문화사랑방 도모
지역과 소통...대중 콘텐츠 제작도



“광주가 지닌 역사성, 예술적 가치 등을 토대로 글로벌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범용성, 확장성 관점에서 광주의 특색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강현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전당의 역할과 비전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며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개관 이후 6년이 넘도록 전당장이 공석이었던 탓에 선장 없이 ‘표류’를 했었다. 더욱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간 조직 이원화로 내부 통합과 콘텐츠 내실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었다.

그는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법적, 제도적 미비 탓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행히 두 조직의 인력, 예산 등이 통합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의 토대가 갖춰졌다”며 “각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민 편의와 서비스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전당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친화적인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며 “민주와 인권 평화를 대변하는 5·18 광주 정신과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연구와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당장은 그동안 솔하게 제기됐던 문화전당의 접근성과 동선 문제에 대해서도 복안을 얘기했다. 사실

ACC는 건물이 지하에 있는 데다 복잡한 구조여서 외지인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방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우선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같은 명칭에 대한 별칭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다”며 “안내판도 바꾸고 보강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문턱이 높고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름의 방안을 얘기했다. 이 전당장은 “무엇보다 시민 걸음으로 다가가는 친화적인 공간을 모토로 ACC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관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4월부터

는 개관 시간을 연중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10시까지 시민을 위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콘텐츠가 난해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점도 솔하게 지적했다. 창작자 문화발전소라는 역할에 중점을 둔 나머지 대중 친화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개발하는 데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이 전당장은 “콘텐츠에 공연, 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조사 외에 해외 레지던시, 실험적인 융복합 콘텐츠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제와 형식만큼은 좀 더 대중적이고 친화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며 “연구 기획부터 창작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25년이면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기에 무엇보다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융복합 전시관을 상설화해 1년 내내 전시를 열고 호응이 좋은 ‘브런치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대중 친화적인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지역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문화전당이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협치적인 관점에서 미흡했다는 지역 내 여론이 있었다.

이 전당장은 “전시, 공연, 연구 분야 자문위원단 구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자문단이 결성되면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당 전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문화예술가들이 자문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당장은 연세대 불교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를 시작으로 드라마 제작과 유통, 전시 및 공연 행사 개최 등 방송과 문화산업 전반을 두루 섭렵한 콘텐츠 전문가다. KBS 미디어 콘텐츠 사업본부장, KBS 아트비전 부사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람사이 ‘제비집’ 광주연극제 대상

연출상·우수연기상 3관왕

극단 사람사이의 ‘제비집’이 제36회 광주연극제에서 대상, 연출상, 우수연기상을 휩쓸며 3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는 제36회 광주연극제 경연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연극 ‘제비집’ (작 원광연, 연출 송정우)으로 대상을 비롯해 연출상(송정우), 우수연기상(유지영)을 수상한 극단 사람사이는 오는 7월15일~8월1일 경남 밀양에서 열리는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 대표팀으로 참가해 전국을 대표하는 극단들과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

‘제비집’은 삼대가 살고 있는 최씨 집

안에 수년만에 제비가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일이 담겼다.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작품이다.

이밖에 예술상은 극단 시민의 장원과 극단 얼-아리의 양원영이 수상했으며 우수연기상은 극단 얼-아리 박영진, 극단 사람사이 유지영이, 신인연기상은 극단 진달래피네 이상익, 극단 바람꽃 고유진 이 받았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제36회 광주연극제에는 극단 시민, 극단 진달래피네, 극단 얼-아리, 극단 좋은친구들, 문화예술공방 바람꽃, 극단 사람사이 총 6팀이 출전했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36회 광주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 사람사이의 ‘제비집’.

광주문화재단, ‘아이조아 가족기자단’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홍년)은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을 모집한다.

선발된 6명 내외의 기자단은 발달성과 기사 작성 역량교육을 거친 후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취재해 재단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소정의 활동비와 위촉장 및 기자증 발급, 재단 주최 행사 우선 초청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은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엄마랑

아이랑 문화기자단’을 개편해 엄마와 아이뿐만 아니라 아빠와 아이, 조부모와 아이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방법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4월 10일까지 이메일(syan01@gjcf.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74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광주음악창작소 음악콘텐츠 창-제작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8일부터 광주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참가 음악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뮤지션 제작지원사업은 10개팀을 선정하며, 한 팀당 800만원 범위 내 총 8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역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음원 및 공연 창-제작에 필요한 소모 경비를 지원한다. 뮤지션 인큐베이팅사업 선정자에게는 K-팝 전문 제작자와 공동 음원제작 기회가 주어진다.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음악관련 전문 4개 과정으로 펼쳐진다. 총 60명 안팎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기초-심화의 교육과정을 나눠 상-하반기 진행된다. 062-654-3629, 362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

화순 출신 왕광옥 시인 ‘내가 악마로 보이니?’ 펴내

화순 출신 왕광옥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내가 악마로 보이니?’ (시산맥)을 펴냈다.

작품집에는 ‘제목이 23자인 나의 첫 시집’, ‘토사구팽에 당한 한신 이야기’, ‘시인이 살았던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등 모두 9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현실을 토대로 이상을 지향하는 시들은 보편적인 경향과는 변별된다.

표제시 ‘내가 악마로 보이니?’는 제목부터 사투 도발적이다. 시인이 쓰고자 하는 세계가 명확하고 이색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마귀// 내가 악마로 보이니?/ 생리인 것을!// 미물로 태어나 지금까지 버려온 건/ 대대로 내려온 조상님의 선택!// 나도 이어가고 있을 뿐이야// 빙하기/ 갑자기 추워져서 먹이를 구할 수 없었어!...”

‘사마귀’를 모티브로 풀어내는 시인의 시상은 독특하

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매개로 시를 풀어내는 방식이 이채롭다. 어쩌면 시인은 사마귀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를 향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도 같다.

시산맥 발행인인 문정영 시인은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도 왕광옥 시인의 시에는 질서가 있다”며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고 시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를 끌고 가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왕 시인은 ‘문장 21’로 등단했으며 시집 ‘아들의 지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을지 몰라’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방 최흥종 기념관

도슨트 희망자 모집

‘오방 최흥종 기념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양성과정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오방 최흥종 선생(1880~1966)은 평생을 한센병(나병) 퇴치와 빈민구제, 독립운동, 선교활동, 교육활동 등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이번 과정에서는 일제 치하에서 나환자를 포함해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등 큰 발걸음을 남긴 사회운동가 최흥종 선생(1880~1966)의 삶과 의미를 교육한다. 아울러 큰 인물의 족적을 구술로 설명하는 방법, 인물기념관의 의미, 방문객과의 소통을 위한 도슨트 기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광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4월5일까지다. 교육은 4~6월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정확한 일정은 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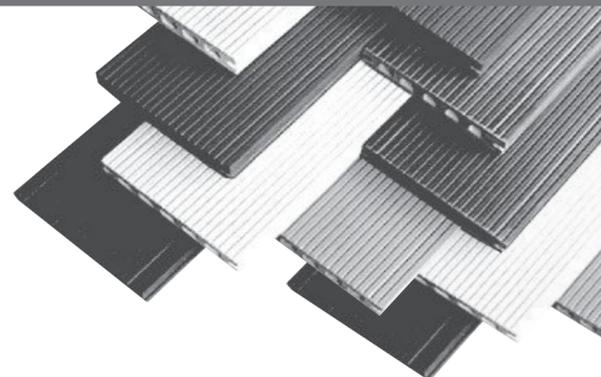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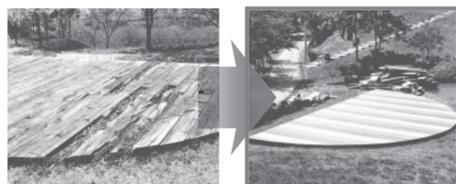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